



민주납부 131명 등록, 후속작업 박차

용인, 대학당국 입장선회 ... 원점으로



지난 20일(금) 서울캠퍼스에서는 '9차 협상보고회'와 민주납부후속 승리를 위한 애국대결대회'가 약 25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민주납부미납일이었던 이날 집회에서는 학생들의 발언시간이 마련되어 등록금 인하와 등록금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학기 약 52%의 투표율과 93.72%의 높은 찬성율을 보이며 가결된 서울캠퍼스 민주납부가

목표를 내건 이번 민주납부 후속 기간 동안 대학당국과의 협상은 9차에 걸쳐 진행됐다.

또한 지난 17일(화) 도서관 앞에서는 '민주납부 성사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9일(목)에는 민주납부자 모임이 진행됐다. 특히, 민주납부자 모임에서는 약 90명 동안 60여명의 민주납부자가 모인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랍어과와 한 학생은 "지지는 학생은 많지만 참여하는 학생은 적은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은 지지학생을 담보하지 못한 학생들이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재정확보를 전제로 부가적인 건 민주납부의 성과가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20일(금) '하반기 전학대회보고 및 제6차 협상 보고대회'가 250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9차 협상에서 논의된 안건으로는 △ 기존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시정개선위원회로 개편, 학생대표 1인이 참석 △중장기 발전위원회와 자국동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의 활성화 등이다. 그러나 등록금 조정위원회에 대한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는 23일(월) 제 10차 협상의 지리로 미뤄졌다. 이번 민주납부 후속과 관련, 총학생회장 박성동(상경·경영 4)군은 "이제는 민주납부에 있는 정리 투

쟁을 준비하고, 모두가 함께 토대부터 다시 쌓아가는 분위기를 만들 때다"라고 이후 방향을 제시했다.

○...용인캠퍼스는 지난 19일(목) 열린 4차 협상 과정에서 대학당국이 그동안 고수해온 입장과는 다른 답변을 해 맞차래에 걸친 협상자세를 무색케 했다.

57억 등록금 유용 복지기금 조성에 관련, 대학당국은 지난 1차 협상에서 "학생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입장과 달리 이날 협상에선 "예산편성에 있어 일정한 비율의 학생 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요구는 학교의 예산운영권에 대한 도전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전공선택권 완전보장'을 위한 '학칙개정'에 관한 학부제 연구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체육관 건립에 대한 요구는 처음의 개인적인 결정권을 문헌화된 입장과는 다른 학생들의 요구는 이성적인 현실에서 적용되기 힘들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관련, 용인캠퍼스 학원자주추진위원장 모성춘(인문·사학 4)군은 "앞으로 7천 학생의 학한 단결로 하반기 학자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박윤정·전영수 기자



'링반데움' 그 장막을 걷자

▲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에 있다. 그 곳은 다른 어떤 비가 오면 서울 거리였다. 한창을 걷다 '이 정도면 거의 다 왔겠다'란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처음의 장소였다. 얼마전 약속에서 그 때의 경험을 반추한 일이 있었다.

▲ '링반데움' 현상, 깊은 안개와 눈보라 속에서 산 정상에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게 지주 일어나는 일인데 자신은 정상으로 향해 골짜기 앞으로 걸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착각속에 주위를 뱅글 뱅글 돌고 있는 것을 알지는 못한다.

▲ 학생들의 주인답게 살 수 있는 학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자국동 이전, 예결산 공개 등을 매 시기 끊임없이 외쳐왔다. 학생들은 '92년엔 정말 외대가 바뀌는 줄 알았다. 2000이 넘는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하고...

나도 그처럼된 문제는 싸움을 할 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인 것 같아'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지난 20일(금) 한 학기 생일이 준비된 민주납부가 마감됐다. 한층더 연세대 투쟁, 학교의 지리용지 취소 등의 약한속에서 131명이라는 학생들이 민주납부를 했다. 3978명의 결의로 시작한 것에 비하면 비록 작은 수이지만 민주납부자가 몇명이라는 것은 중요치 않다.

앞으로 이를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와 두개의 납부 사이에서 등록금을 못하고 있던 1500여명의 학생들을 투쟁에 묶는 것이 필요하다.

▲ 민주납부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학생들 뇌리속에 잠재되어 있는 외대발전에 대한 패배적인 생각들을 떨치고 우리도 자국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지금의 민주납부가 지니는 책무인 것이다.

'링반데움'에 걸린 외대발전. 그 장막을 민주납부로 걷어 제지자.

김재경

'21C 통일한국의 비전' 세민전 1일 개막

비어문계열의 능동적인 준비 돋보여

'21C 통일한국의 비전' 세계민족학술문화축전(세민전)이 오는 10월 1일(화)부터 13일(일)까지 열린다.

이번 세민전은 세계문화축전, 세계종교·음악·춤, 세계민족공연의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세계문화축전에는 총 19개과가 참여해 동양관, 서양관, 동구관, 한국관으로 나뉘어져 각 나라의 문화를 비롯한 정치, 경제를 보여주는 영화가 상영된다. 정재영(동국대 교수), 변영주(숙명여대 교수) 등이 초빙된 영화 감상후 강연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0월 5·6일은 대하로, 방송에서 각 나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특유의 음식을 전시하는 세계종교·음악관이 19개과가 참여한 가운데 치뤄진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이 행사에서 나리마다의 국화·가관·종교·민속놀이 등으로 각 나라를 좀 더 심도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세민전 마지막 행사인 세계민속공연은 10월 12·13일 서울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재학생을 비롯한 동문, 일반시민과 함께 4회공연을 갖는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 세민전에 참여하는 자연대의 경우 단체 홍보영화 제작하고 공대는 자체제작 전시물을 만들었고 인문대와 경상대 등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분단조국을 역사를 짚어보는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 세민전 준비위원회 문석규(동학·인도어학 4)군은 "올해는 영화제와 심포지엄이 더해져 어문계열 중심의 세민전에서 탈피하여 7천여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지리가 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한다.

홍윤화 기자

평가인준제 발표로 사범대 존폐위기

대학당국, 대책마련 의지없어

제 3차 교육개혁안(교개안) 발표후,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준제 도입에 대한 대학당국의 구체적인 계획 부재로 본교 사범대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교개안에서는 내년에 각 사범대 및 교원 양성기관에 대해 평가인준제 도입에 부처적 관점을 받은 기관은 행정적·재정적 재정을 가해 양성 체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교개안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범대는 일반 대학으로 전환하고 타분야 진출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개안에 대해서 사범대는 원칙적으로는 이번 교개안

을 반대하며 현재의 사범대의 목적성과 전문성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찬성을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평가인준제에 대한 대학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실무적인 작업이 정무한 상태여서 더욱더 불운한 가운데 있다. 이번 교개안에 대해 사범대 학생회장 이원복(사범·영교 3)군은 "학생회에서는 사범대 학생·사범대 교수 그리고 외대인으로 구성된 민주 연맹을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여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대학당국과도 사범대 지원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지 면 안 내

과 학생회 협회... 작은 전학대회 3년 "최후까지 오지않는 단지는 대표자들도 올 수 없다"

세민전 여기까지 준비됐다... 7면 분어라는 '유지력'을, 일본어라는 '스프'를 한다는데...



본교 제20차 모의 유원총회... 5면 아·태지역의 정치·경제·문화·관광·학령들의 열린 참여속에 성황리에 치뤄졌다

식당에 대한 설문조사... 6면 식당이 바뀔만큼 학생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졌다.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싶은 학생은 6면으로

본교 이장회 교수들 만나... 연대 통일투쟁에 내건 4대 정치과제에 대해 9면

추석맞이광고

"정겨운 추석 보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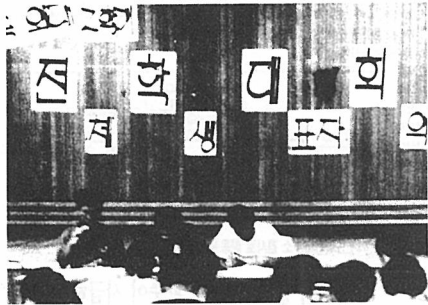
막히는 고향길이 답답해도
설레며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부모님품으로 가는 까닭일 것입니다.
등록금때문에 여전히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며
외대인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외대학보도 정겨운 추석을 맞이하며
10월 7일자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 올캠퍼스 제4차 전학대회 내용 및 평가

과학생회 침체가 낳은 '작은' 전학대회

하반기 학원자주화투쟁 과제 논의



이런 학기로 4회째를 맞는 명실상부한 학생회의 최고사결정기구 전학대회는 '과 학생회 강화'라는 과제를 내놔.

'민주남부 투쟁 완전승리의 길로 하우대 중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기반한 한 점 주 지함도 없이 달려나가기'는 결의로 서울캠퍼스 제 4차 전학대회(전학대회)가 지난 18일(수) 제2차회의인 212명 중 78명의 참여로 개최됐다.

△상반기 평가 △하반기 학원자주화투쟁 토론 △하반기 정책 전망 및 투쟁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선거시행세칙 개정 △연 결회의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정이 표결안건으로 상정됐다.

1시간 30분동안 토론을 지속했던 연 결회의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정이 표결안건으로 상정됐다.

토론안건으로 제안된 상반기 평가는 과·단대의 토론을 거쳐지 않아 확대운영 위원회로 회부됐다.

전학대회의 정경이 됐던 하반기 학원자

주화투쟁은 3차 전학대회에 합의된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상경대 학생회장 김창수(무 역 4)군의 발제와 서양대 학대운영위원 10인의 발의로 작성된 '등록금 투쟁 평가' 라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토론회 진행됐다. 서양대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예견상있게 준비되지 못했다'고 지도 단위학생회가 등록 금 인상에 대해 명확한 목표와 입장을 표 명하지 못했다'는 평가속에 '7300학생들을 주안으로 내세우고 협상'이 대중투쟁의 성 과물로 남아야 한다'며 부당한 등록금 인 상 저지라는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경대 기획부장 현승언(경영 2)장은 '투쟁 목표가 바뀌었다'고하는 학 생들의 역량에 맞게 조정됐다고 받아 한다 "며 '학생들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며 학생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과제이다'는 입 장을 밝혔다.

자정이 지나도록 논의된 2학기 학자투는 '투쟁원칙, 투쟁목표, 실천 방도'라는 3가 지 기본원칙에 동의하고 끝을 맺었다.

두돌박이 전학대회는 이전의 건설단체를 뛰어넘어 풍부한 내용생산과 논의를 바 탕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결기구로서의 모 습을 갖추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4차 전학 대회는 △과·단대단위 토론 부재 △중앙 의 긴급제안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과학생회 침체로 대의원 78명만이 참석한 작은 전학대회의 모습을 보였다.

"과회장이 오지 않는 단위는 과대표들을 을 수 없다"며 과학생회장의 역할을 강조 하는 총학생회장 박성종(상경·경영 4) 군 은 "과의 자립력과 중앙의 지도력을 잘 배 합해 학생들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기구로 변모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재정 기자



꼭지없는 수도꼭지

올인캠퍼스 학생회관 남지회정 실의 수도꼭지가 부러진 채 며 칠째 방치되어 있다.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대 이면 시설관리처가 이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더하고 있다. 외대를 가꾸는 작은 노력은 이런 시설의 조속한 사후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김복영 기자

민·주남부투쟁 평가와 과제 — 짚막 인터뷰

지난 20일(금) 마라민 민주남부 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길 을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하태준 (상대 무역학 1)

처음 투표 때는 찬성했죠. 누 구나 느끼는 외대의 모습들을 나 역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 설득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사실 의도는 좋지만 저처럼 불이익에 대해 걱정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민남자주도 예상보다 적은 것 아니었나요? 또 해내면 기가 일반 학우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정치투쟁과 섞이더니 그 게 불만으로 누락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측이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 니까 지금 외대가 퇴락하는 거죠.

외대의 등록금 투쟁은 좀 더 단 단위에서-예를 들면 한층-단결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진영 (법·법학 4)

민주남부는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학생의

돈을 빌리므로 투쟁에 이용하는 것 같이 대의명분이 부족해 보였기도 요. 그래서 결국 제도 탄압을 하진 못했구요. 그런데 제인의 태도를 들어보니 극악치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학생회에 대한 불신이나 비학생회와의 거리 를 좁히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 다. 그러나 열심히 한 것만은 분명 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결국 얻어낸 것은 계속적인 재단 의 역할이 복지 사안 몇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잖습니까.

문은미 (서양·독일어 2)
제가 민주남부 한 거 부모님은 모르게요. 그날 전 개설했던 것은 해 야한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까. 물론 방법상의 문제 등에서 학생들의 잘못도 있 지만 그것까지 같이 고만하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민남 후 속투쟁도 그런 차원에서 민남자들이 회생력이 아닌 비민남자와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 바로 잡습니다. —

672호 전대기권 공동기자중 송남대 주간교수의 '원한을 세 줄테니 기사 좀 풀어달라' 는 부분의 기사는 사실과 다 르므로 정정합니다.
673호 학부제 관련기사중 '언 이학과 폐교위협'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동연 교비·공간재배치 문제

“대중평 앞두고 어쩔수 없었다”

대학당국 독단적인 운영 지양돼야

교비·공간재배치 등 학생자치권 문제를 둘러싼 동 아리연합회(동연)와 대학당국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 인다.

동연은 현재까지도 방중 교비와 기본운영비를 대학 당국에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규동아라는 기본적인 공간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외물박이 신세로 학대 동아리 사이에서 지리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캠퍼스 내부의 경우는 그간 10년을 사용해오던 연승공간에서 대저공간도 받지 못한채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사 태까지 있어왔다.

동연은 지난 하계방학에 임박해서 16% 등록금 인상률에 따른 방중교비를 신청하는 공문을 학생회에 발송 했다. 그러나 학생회는 10% 인상지급을 고수하며 개 각후 3주째 접어드는 지금까지 방중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학생회는 꼭 등록금인상뿐만만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아리의 활동과 성격에 따라 지 원내용이 달라질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아리연합회 사무국장 한현호(자연·물 리 3)군은 "우리들은 더 이상도 아닌 등록금 인상률만 큼 요구하는 것"이라며 "어디까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함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빙계로 수용하지 않는 학생회 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요구했던 기본운영비 5만원 지급 도 학생회의 모습은 타격을 보지 못함으로써 모든 동 아리가 대학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연측은 서울캠퍼스 동아리는 5만원의 기 본운영비를 지급받고 용인캠퍼스 동아리는 3만원의 기

본 운영비를 받는 등 아무런 근거없이 차별지급을 받 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명식(이프리카어 교수)학생처장은 동 아리 기본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지금은 양립체간의 차별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서울캠퍼스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군은 "대학당국은 양립체 동아리 활동의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간판더라 특같 은 등록금을 내고 이런 차별을 받는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토부는 지도교수 육선수 교수의 구두통보를 받고 발간한 기간 연승공간이었던 무용실에서 하루아 침에 자연대 강당으로 옮겨가야만 했다. 그동안 검토 부 기구 측으로 인해 천장이 열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방중에 학생회관 지하내부를 망목하게 공사 를 했으니 이쯤에서 다른 공간으로 옮길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토부 주장 조영우(서학·영어 2)군은 "자연대 강당은 높이가 3미터정도 되는데 운동을 하 다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육교수는 "내년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앞둔 시 점에서 반복되는 천장손상을 우려해 어쩔 수 없는 결 정이었다"고 밝혔다.

동연측에서 '학생자치권관망'이라고 명제하는 이번 사태는 학생회와 대학내 합의없이 이뤄지는 대학학 회 의 독단적인 학사운영방식에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전영수 기자

● 올인캠퍼스 학부제 관련 대토론회 내용정리

“지금의 학부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지난 18일(수)에는 학부제 문제 완결 해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 경동의동 206호에서 열렸다.

작년 12월 11일 학부제 공청회 이후 급변하는 처음 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인문대 학생회장 김영기 (언어 4)군의 사회로 총학생회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 모성훈(인문·사학 4)군과 올인캠퍼스 교무처 장 조이환(포토무량어 교수)이 참석하여 학생과 대학 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생들과 대학당국의 질 의 응답시간이 주어졌다.

이날 학생측은 방제와 아울러 △대학당국의 공개 사 의 표명 △대학당국과 학생이 공동으로 학부제 연구 소위원회 결성 △97년도 학부제 실시여부는 구성원의 합의에 결정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최대한 보장 등 을 골자로 하는 4가지 요구를 대학당국에게 제시했다. 다음은 총학생회 질의에 대한 대학당국의 답변이다.

·학부제가 현재 외대에 실시되는 부분과 원인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다.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원형대로 학부제가 실시 되지 않고 있는가.

·차이점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보장에 있다. 그러 나 모든 학부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면 학사운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학생의 전공선택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원 래 학교의 사명에서 전공을 가능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 기존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현재로써 방도 를 모색한다면 1학년 성격으로 좌우될 듯 싶다. 그러 나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칙개정의 수준을 밝혀달라

·학칙개정을 위해서는 먼저 단과대학 교수의 협 의를 거치고 교수위원, 전체교수회의를 통과하여 합 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대에서 장기적으로 학부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 이 올라라고 생각하며 이 제도가 우리나라 교육이전 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신입생들에게도 2학년의 전공 선택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외대는 여러가지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 2전공제라도 제도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며 학부 제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 요하다.

전영수 기자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 - 현대

낯선 땅, 모두가 실력자로 보이는 낯선땅에서... 첫 출전에서 오는 긴장감은 낯 익숙시킴에 충분했다. 만약 현대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없었다면 순간 자신감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국제 기능올림픽은 최고의 기능인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대회!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시작된 7개월간의 훈련은 모르는 것을 배운다고 보다 '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나간 시간이었다. 특히, 직장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꿈! 나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현대에서 그 꿈을 계속 펼쳐갈 것이다.

인간존중 정신으로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현대 - 현대는 가치경영으로 큰 인재를 키워나간다.

국제기능올림픽 정보지원팀이 한국의 첫세계 수상자 현정복기사를 감성인사함

4907

4908

제2의 윤금이사건 발생

한미행협 전면 개정 통한 대등한 관계 구축 필요



주한 미군군 대이성 필요성이라고 주장 미군법정지 일선에 2천여명 하부참모 6만 이상씩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 사권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미행협에 전면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군에 의한 한국인 살해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난 7일(토) 새벽 6시경 등주에서 미 제 2사단 2여단 1503보병대대 A중대 무니치 예식 스티브(MUNNICH ERIC STEVEN)에 의해 이기순(여, 43세)씨가 연발 짙은 칼로 목 이 반쯤 찢린 채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스티브는 이기순씨를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한 후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발에 밟아 있던 연발 짙은 칼로 머리뼈를 잡고 목부위를 약 12.5센티 잘라 정맥을 절단해 현장을 사멸해 버렸다고 한다.

살인범으로 지목된 스티브 이병은 우리측이 한미행협

정상 살인자에 대한 심판을 인도 받아 수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미 육군 범죄수사에 보호하려 할 때 미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이기순씨는 제대로 된 정제라도 치루지 못하고 지난 11일(수) 화상 되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이래로 미군 관련 범죄는 해마다 있어 왔다. 1년에 약 2천여건, 하루 평균 6건 이상씩 일어난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건들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미군에 의해 무한히 살해된 윤금이씨 사건, 총무로 지 하할 집단 난동 사건, 세모녀 집단 폭행사건 등이 나타나 정말로 주권 국가가 위상하 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일어난 사건들이 대도 우리 정부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미군법정과 관련한 재판관 형사들은 평균 0.7%에 불과했고 문민 정부시대에 와서도 재판관 형사들은 2% 정도라고 한다. 이외에도 미군까지 반란과 일탈로 문제 미군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 미군 주둔과 관련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

이것은 제2의 윤금이사건이라고 불리는 불평등한 한미행협협정(SOFA) 때문이다.

미군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등한 조약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자 우리 정부와 미국은 그동안 몇 차례의 한미행협 개정협상을 벌여 왔다. 하지만 미국측의 대표적 불평등 조약에 대한 개정반대 입장에 부딪쳐 반반이 아주 작은 부분만을 고치는데 만족해야 했다.

한미행협협정 대표적 불평등한 범죄자 신병인도 문제와 재판관할권 문제, 미군 범죄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한국과 한국인에 손해 배상 청구권 보장문제와 우리 경찰의 합동조사 문제 등과 관련 미군측은 행협 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11일(수)부터 6차협상이 끝난 후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한미행협개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미군측 태도를 봤을때 전면적인 개정은 요원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범죄규율 공동본부장 사정장 정유진씨는 "미국 범죄는 미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이다"며 "수사권을 한국에 양도해야 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행협협정의 완전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수 기자

시론

'시대역행적'인 예산편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건국의 지가 열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제침체에 대한 고려에서 건국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재정규모 증가는 14%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나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내년 예산에 임박해 추가 결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부들러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방위비 12%증액, 사회기반시설 투자 25%증액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올해의 경기불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국제수입의 한정한 감소때문에 세수확보의 어려움도 만만치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조건 건국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 환경개선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등 우리 사회의 체질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참된 경쟁력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도 탓할 일이 아니다.

이번 외에서 정부의 97년 예산안은 문제투성이다.

우선 문화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화체육부가 문화복지기획단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장기 문화복지 구상에 의해 예산도 절반 이상 삭감해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음으로 환경정책을 위한 예산이 축소될 것 또한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주요 환경 분야 사업에 대해 이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해 정부의 중장기 환경개선 대책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한 반면 예산을 의식한 정치성 예산 편성에 패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분명해 드러나고 있다. 대이성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던 관련단체에 대한 예산배정을 신원국립의 요청에 의해 크게 늘린 것이나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기업에 대해 다시 출연하겠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기업들이 공약으로 내건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등 총선·대선 공약 이행 차원의 예산편성에 목소리를 높인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와 같이 불가·성정들·국제수지가 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불가안정에 최우선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통화정책도 고비용 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공리를 잡기 위해서는 신중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재정건조 박는 달리 유동한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태에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없애거나 대폭 삭감해 정치성 예산, 선심성 예산, 민원해결 예산, 공약이행 예산 등으로 남발하는 것은 실사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과 일부 집단에 이익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예산 전체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예산편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건국예산을 희생시키는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가 예산 편성 자체뿐만 아니라 예산이 다

행이라는 생각이다.

최근 들어 경제위기의 파도조각과 한층더 사건을 사발로한 보수회권 분회기류 등에 얽고 안기부 수사권 강화, 경찰의 총기사용 허용, 공정거래정책 후퇴, 재벌정책 후퇴, 금융실태조사 보완과 금융소속종교단체 심사 연기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민정부 이전의 5·6공 시절로 돌아가려는 '시대역행적'인 수구로의 회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나영삼

(경실련 정책실장 간사)

사회단신

해고노동자 21명 강제연행

지난 18일(수) 새벽 6시경 마포 민주단사에서 해고자 복직과 노동법 개정안 제정을 위해 농성중인 민주노동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 해투) 나한군 대표를 포함한 21명과 해고노동자들이 강제연행됐다. 사법청사 40여명과 진정 100여명에 의해 강제연행된 21명의 해고노동자들은 현재 마포, 서대문, 서부, 은평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어 있다. 강제투쟁은 지난 17일 목요일 '노동법 개정 저지를 위한 전향투쟁'을 벌였고, 이 성명서에서 전향투쟁은 "경찰의 마피와 개혁 과제는 미미하며 '신노사관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노동은 즉각 노사관계위원회에서 일회하고 노동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 가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민주노동과 전향투쟁에서는 "오로지 정부측의 강제연행 구단전회와 노동법 개정 저지 투쟁을 계속받아야겠다"고 밝혔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제 열려

전국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는 지난 주(18일~21일)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21일(토)에 '제7회 민족회문 열매의복 및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추모

사업회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 시절의 법과 제도, 인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를 협소한 정략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와 인권과 기본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기념주간 중에는 의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유골발견 제정, 열사봉헌, 개관 민주사업과 국가유공자지킴,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등 각종 악법 개정과 철폐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21일 마포나예공원에서 열린 합동추모제는 사전 길놀이, 합동추모제, 열사추모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향투쟁의 거로, 조성만 열사의 거로 등 열명식이 있었고, 열사들의 상공기가 재현됐다.

교수회, 침탈에 관한 성명서 발표

부산대 정경 11개중대 침탈

지난 19일(금) 오후 3시경 정경과 백관단 11개 중대 폐쇄조 2대, 특수인입부대 등이 김희성(부경총련 의장, 부산대 총학생회장)군을 비롯한 2-3명의 수배자를 검거하는데 명분으로 부산대학교를 침탈했다. 부산대학교는 11, 12일 동맹휴업 투쟁에서 53% 투표율에 73%의 찬성으로 13일 '공인탄탄 본래와 학원자율권 수호를 위한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오후 2시에 '부산대 2학기 진급제'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 때 백관

제도 백관대 대거중이었고 1시간 후 신정문과 구정문을 통해 병력이 난입해 집회 무대를 점거, 부수며 학교내 도로를 막고 학생들을 연행했다. 그러나 1000여명의 학생들이 투석전을 벌여 4시 20분경에 병력을 밖으로 밀어냈다. 한편 부산대 교수회에서는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와 과정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이러한 처사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학의 안정과 발전은 구성원 스스로 대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히고 학교의 공권력 침탈 방지를 강력히 정부에 요구했다.

연대 한총연 사태와 관련, 3명 제적

연세대는 전국 대학중 처음으로 지난 한총연 통일투쟁과 관련, 이 학교 총학생회장 박병연(기계 공학 4, 사총련 의장)과 이두균 부총학생회장(철학 4)을 비롯, 한총련대표로 임복현 도종화(기계 공학 4)군을 제적하고 총학생회 사무국장 병명연(신리학 4)명 3명을 무기정학 처분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총련 학생정치는 "학문의 장인 학교사실과 교육환경의 파괴는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일대 14명 전원을 제적처리를 방한이었으나 구제처사에서 11명은 무기정학 처리했다"고 밝혔다.

외대만평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언론을 하는 사람은
누구여 국민이(?)
용납 못해...



21세기 세계금융시장의 주역- 동서증권

동서증권의 힘 - 세계금융시장공략!
서울, 런던, 뉴욕, 도쿄, 홍콩, 하리하, 싱가포르, 자카르타, 상하이 등을 잇는
해의 주요 금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현지법인과
지점망을 구축하고 있는 동서증권의 힘은
빠른 정보와 빠른 서비스로
세계금융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일류 종합금융그룹을 지향하는 동서증권

- 43년의 업계 최고 역사의 종신사
- 8,000억원의 자기자본으로 업계 장성의 초대행 주권사
- % 증권감독원 장기경영평가 최우수 증권사 A.A 등급 획득
- % 증권감독원 자재감사 최우수 증권사 선정
-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선정 주가예측능력 최우수 증권사 (종합1위)
- 투자신탁운용회사, 경제연구소, 한부금융, 캐피탈을 통한 초일류 종합금융그룹 지향



고객과 세계를 하나로

동서증권

4대 정치적 과제 - 이장희 교수에게 듣는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기초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8·15통일행사'는 언론의 해곡·편파 보도에 의해 '한반도 난동사건'으로 매도되었다. 언론은 한총련이 내걸었던 4대 정치적 과제인 평화통일정책결·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한술의 실명도 없이 단지 그것이 북쪽의 주장과 비슷하다 하여 한총련을 북한 하수인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언론에는 한반도에 자재해 보도되지 않은 한총련의 4대 정치적 과제에 대해 본고 이장희(법학)교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왔다.

한정자

최근 한총련의 연대 통일투쟁과 관련하여 많이 많은 연방제통일방안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고려민주주의화공화국'형식방안을 살펴보면 남북 북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동등하게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최고인민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만들어 남북 북의 자치정부를 지도하여 연방공화국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도 90년대까지만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의 내용이고, 90년대 들어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연방제통일방안은 그들의 존립상 많이 수정되었다. 91년 북한의 김정일 주석은 신년사에서 연방제통일방식을 남한과의 '협'을 통해 점진적 단계로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북한은 연방제의 각 1단계로 2개의 지역공화국을 창립하고, 외교, 군사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단계적인 방식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수용 또한 밝힌 바 있다. 현재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는 양 지방정부(남한과 북한)가 외교와 군사권을 가지고 비 정치, 군사면에서 여러 권한을 중앙 기구에 위임하는 형태의 것이고, 제도적, 국가적 통일은 후대에 맡긴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남한정부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립공화국 내용과 비슷하게 되었다. 북한은 남북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점진적, 단계적 방식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우리는 단지 연방제를 북한이 주장한 것이라고해서 안락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의견이라도 우리 한민족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일치할 때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제안한 북미간의 평화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북한이 북미간 평화협정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974년 3월 25일이다. 그러나 94년 4월에 북한은 '비핵화 평화보장제국수립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때 언론이 '북한은 미북한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서부터 남한을 배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상당히 왜곡해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그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고, 남한을 배척하라는 언급도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그들이 미국과 싸운 것은 오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도 미국과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적 당사자는 한국, 군사적 당사자는 미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남북간의 심한 군사적, 군사적 불신상태를 사실 '평화조약'보다는 '평화보장제국'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을 약속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내 상 호봉기침약속도 불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91년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를 국비비준동의을 받았으나 남한은 아직까지 국비비준동의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내 법규를 소용할 수 없고, 남한은 전 시 군사적안전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족문제해결에 특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정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양심수 석방문제가 남아 있다. 최근 정부의 공안분위 기형으로 많은 시국 사람들이 속속하고 있는데 이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서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도 인정한 국가인 북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한반에 명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우리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는 남북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국가보안법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기초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 경면도 선거공약으로 임기 중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남북간의 시대를 열 것임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민족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부정적합의 내용의 국가보안법을 고수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은 나름대로 냉정합의적인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우리 국보법에 해당하는 북한법령상 반혁명범죄에 대한 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고, 우리의 영토 조항에 해당하는 북한법령 제5조도 삭제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냉전논리가 그대로 담겨져있는 법률들의 정비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도 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해 합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생존전략을 보장해주는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 현 시기에서는 동북아 세력 균형의 차원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힘의 공백이 생기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불러일으켜 한반도 통일환경조성에 좋지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철수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신중히 이루어야한다.

-최근 한총련 통일투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학생들의 폭력적 시위문화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그것을 이유로 공안정국을 형성하여 많은 양심적 민주인사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 또한, 단지 이런 사태의 현상만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여 해서는 안된다. 그 사태의 본질과 배경, 동기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또한 차세대 통일주체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최근 언론이 보인 편파보도처럼 죽여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합법적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그들의 의견도 존중받고 보장되어야하며 언론에서의 비판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김정희 기자

한국 언론을 진단한다 3

대북 보도, 냉전논리 입각한 보도경쟁... 오보양산

언론내부 자성·국민적 감시 필요

글 쓰는 순서

1. 한총련에 대한 해곡 보도
2. 보도지침의 관행에 대해
3. 국제적 망신인 북한 '오보'
4. 언론과 재벌·권력과의 관계
5. 우리 언론이 나아갈 길

'세계적 오보'의 국제적 망신

'김정일 본처 사방탈출' 96년 7월 13일 조선일보 1면 뜰기사다. 통단 먹튀의 표적로 시작하는 이 보도는 이후 동아일보가 1면 톱으로 하면서 국내 일간지 전채로 확산됐다. 더욱이 한국언론계를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모두 1면 톱으로 다루면서 사방언론 대부분도 비등하게 취급했다. '세계적 먹튀'가 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본처 사방탈출'은 5개월만에 '오보'로 판명났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성혜림씨는 처음부터 망명사가 없었으면서 수시로 드나들었던 스위스 제네바에 잠시 나온 뒤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곧바로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갔다는 것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확인됐다.

과도한 특종경쟁이 한 원인이 된 이 오보는 처음부터 언론계 일각에서 적지않은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기자협회보'는 이 '세계적 먹튀'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가령 '김정일 본처 사방탈출'이라는 특종기사는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점에 서 선정적, 냉정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혜림은 결코 김정일 비서의 본처라고 할만한 근거가 없었으며 그 후 성씨가 망명할 의사조차 없었다는 점이 명백해 진 상태였다. 이미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몇몇 언론들이 '엿듣기'라고 표현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10년도 훨씬 넘게 평양을 떠나있던 배우 출신의 성혜림을 '김정일 본처'라고 규정하는 까닭이 선정적이거나 냉정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면 무엇때문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한국언론에 따르면 성혜림은 이미 프랑스에 머물거나 독일로 미군기지에 은신했으며 이에 미국으로 갔다는 보도도 나왔고 심지어 곧 서울에 온다는 것도 시가한 먹튀으로 1면 톱을 장식했다. 지나친 억측일 뿐 아니라 비박이 아닐 수 없다.

대북 해곡 과정 보도 사죄 민주주의의 귀환

대북보도의 해곡과정이나 오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받은 대북 보도의 문제점은 언론의 뿌리깊은 '냉전시대론'에 근거한다. 즉 '냉전적 사고와 남북대립의식'의 산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북한 히스테리'는 우리 사회의 심상을 혼란 정도도 심했다. 94년 김정일 주석 사망후 불어닥친 '조문파동'과 '주사파동'은 일종의 냉전적 현상이다.

94년 7월 10일 조선일보의 3면 톱은 '평양 시민 집단 히스테리'였다. 사실에는 북한 주민들을 '김일성교에 피어있는 울부짖는 공산정체'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일



대북 보도에 있어 구체적인 망신거리가 된 우리 언론은 냉전시대론으로 표방해 오보를 양산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초에 있었던 성혜림씨 사건에서 나타난 언론의 해곡보도 작화이다.

보는 김일성을 김일성주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수시로 드나들었던 스위스 제네바에 잠시 나온 뒤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곧바로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갔다는 것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확인됐다.

이러한 먹튀 사건과 함께 '주사파 발원'은 한 비담 소모적인 색깔 논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기류를 놓칠새라 이른바 문명정부의 신공안정국이 가무로 형성,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다. 박종철의 폭로내용 "북한의 장악국을 받고 교수가 된 학생이 있다", '김정일 추종세력'이 국회까지 침투해 있다, '주사파 배후는 김정일'은 검찰 조서결과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으나 그런 상황으로 끌려간 것은 무엇보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언론이 평소 즐기는 냉전논리에 입각한 생색에서 냉전논리는 현실에 비추면 박종철사건을 다뤘던 언론의 보도태도는 새삼스러울 바는 아니었다.

95년 11월 5·18특별법 정국에서 북쪽의 남침 가능성을 대서특필하던 언론들의 행태는 96년 4월 11일 15대 총선을 앞둔 언론의 '정경위기를'을 주축으로 한 북한소통은 남북관계가 단순한 그 자체의 해곡보다는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무책임한 보도 경쟁 '진실'보다 '특종'

그동안 대북보도는 부정확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추측, 제멋대로의 기사 및 오보를 양산해왔다. 국내언론의 북한관련 보도에 대한 공신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실추되기 시작했다. 더

우기 역대 정권은 위기에 빠지면 대북관계를 교묘하게 정치상황에 악용한 사례가 많이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하는 의구심조차 지평을 뚫었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이라는 취재물들의 대상을 기사화해야만 하는 보도현상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조국분단의 현실, 언론사 무한경쟁, 정보공공의 취재의 제한 등 제각조가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북보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무책임한 보도경쟁은 분명히 잘못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오보라는 극한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대북 보도관행 개선에 언론 인력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일각적으로 통일언론을 일컫는 언론내부 운동의 활성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분단 50주년을 맞아 '통일언론실천 1천 900만 3천여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일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선언문에서 언론인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오늘 통일언론실천선언을 한 뒤에 모든 언론이 종편으로 보도·제작하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언론인들이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어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아직 민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언론내부의 자성과 개선 활동은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남북관계 보도에서 언제나 민족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며 진실만을 보도할 책임과 의무가 언론에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들의 대북문제 보도감사의 적극적 참여 또한 중요하다. 최근 경실련에서 '남북관계보도를 감시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됐다. 수용자가 적극 언론의 남북관계 해곡보도를 감시·비판하는 한편 통일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요하는 조직적인 운동이 절실한 것도 '특종'이 장에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본분을 찾기 위해서이다.

신 미 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

코오롱 국제화 추진전략 시리즈 - '국제화 전문가' 편

Do in Rome as the Romans do!



코오롱은 세계 곳곳에 '국제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민족의 세계일류'를 실현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된다" 국제전문가를 향한 대장정에 오르는 젊은 코오롱인의 가슴이 뜨겁지만 합니다. 자기 분야의 내로라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언어와 풍습, 문화와 역사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돌아오는 코오롱의 열리트론. 코오롱은 전사원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화 전문가 해외파견, 사내/외의 MBA 교육, 신입사원 해외연수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세계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역량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국제전문가그룹 - 코오롱. 세계를 공략할 당신의 페이스 캠프입니다!

코오롱

대 학교육의 희망찾기 ③-대중평 기준과 항목 설정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

‘대학서열 매기기’ 아닌 대학발전계획 수립의 발판돼야

현행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의 기준 및 항목과 방법

94년부터 본격 시행된 대학평가 인정제는 대학을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학부는 교육·연구·사회봉사·교수·시설 및 실험·제정 및 경영의 6개 영역에 걸쳐 100개 항목을 평가하며 대학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20개 항목을 평가한다.

그로서 학부는 교육 120점, 연구 70점, 사회봉사 30점, 교수 80점, 시설 및 실험 100점, 제정 및 경영 100점을 합쳐 500점 만점에 328.3점을 받으면 평가에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그리고 대학원은 100점 만점에 66.5점을 받으면 합격된 것으로 한다. 이러한 대학종합평가는 평가 신청에 따라 대상 대학이 선정된 뒤 대학별로 자체 평가위원 보고서 작성에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2-4일 동안 현장방문평가의 실시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공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잘못된 대학평가 기준 및 항목과 방법

하지만 이런 식의 평가에 대해 비판이 만만치 않다.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잘못 선정할 때에 이를 준비하는 각 대학은 실정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정해진 기준에 맞춰 평가 점수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평가기준이 획일적인 것이 문제다. 학교마다 학생 수가 다르고 편성된 학과 종류와 수가 다르며 학교 역사가 다르고 재정 규모와 능력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평가기준은 이

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평가기준대로라면 학생 수가 많고 이·공계 열학과가 많으며 재정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실험실건 수, 도서관, ‘명문대학’ 일수록 유리하게끔 돼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 탈락률, 학부종합평점의 취업률, 교내연구비 수탁 실적, 산·학·연 협동체제와 실험, 장입 교수와 확보율, 학생 1인당 도서관, 실험·실습장비 확보율, 교육재정 규모 등이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식의 기준에 따라 대학을 평가할 경우 대학간 격차는 더 커져 갈 것이다. 소위 명문대학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더 많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반면 비명문대학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해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평가항목 설정에도 문제가 있다. 대학은 교육의 타당성이다. 그런데도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비합리적 정경도 흔하게 일어난다고 있다. 따라서 평가항목은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과 청렴성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이와 관련한 항목이 단 하나도 없다. 학교운영의 부정부패와 정경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이 발생·조장조차 없다. 고작해야 재단장급이 대학재정 수입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 뿐이다.

그 반면 학생지체율을 규제하는 데 일조하는 항목은 부지기수이다. 최근 1년간 휴학을 한 학기만 수업을 이수한 학생의 총실적률과 성적평가방법, 과제를 처리, 평가기준 적용의 엄정성 및 학사 일정 등 학생들의 학습정성을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대학평가란 어느대학이 낮고 못하고 하는 식의 대학의 순위를 매기기 위함은 아니다.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대책의 마련,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수렴과 반영을 통한 대학발전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사 검토제’가 임박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이 감시되고 한 번 ‘학생회’ 주관의 열리는 운동권 간부학생들에 의한 신의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부산대의 경우엔 ‘학생회비 징집에 대한 지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경북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학점이 너무 후한 것과 지도교수가 없는 동아리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특히 충남대는 학사검토제가 20이 아니라 1.75인 것으로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이다.

평가방법도 문제가 있다. 내실있는 대학종합평가를 위해서는 현지 방문 평가에 상당한 비중을 봐야 한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와 서류면으로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지방문평가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대학종합평가의 정확성과 내실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올바른 대학평가와 대학의 발전

사실 학생들을 올바른 인격과 우수한 능력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교육기관인 대학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가 평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대학평가는 결국 각 대학간 소모적인 경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대학발전은 퇴각해 보라는 도리어 파행으로 치닫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평가란 어느 대학이 낮고 못하고 하는 식의 대학의 순위를 매

기기 위함은 아니다.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대책의 마련,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 수렴과 반영을 통한 대학발전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대학평가를 위해서는 학내구성원들의 자주의 참여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도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기준을 평가 결과 그 자체보다 평가가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어느정도 얼마나 얼마나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다면 각 대학이 대학평가인정제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실정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다.

전 동 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실장〉

03 잠수함

0... ‘태공 수사관 확대’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시 03 안기부 잠수함이 부상하고 있다. 그 동안 있던 개척호가 만중들에게 잠몰되어 위험하다 드디어 YS의 히든 카드가 나타난 것이다.

03 안기부 잠수함은 비록 잘 보이지는 않으나 무서운 ‘YS 살리기’의 음모를 숨기고 있다. YS를 위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일만명의 미사일을 만중에게 퍼부어 볼까?

〈월〉

0... 대한 뉴우스. 현재 학교 당국은 지난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발령이들을 혼동하고 착한 학생들을 선도한다는 취지아래 물이 들대로 들어버린 골수분자는 꺼르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연합 할 때까지 집에서 죽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조조 할인’으로 영화관에서 뉴스를 들은 세대지와 이적 할. 『시대 유랑, 『인문 잡지』를 이어, 그레도 『독자로 살아라』

〈월〉



0... ‘어머요! 전국 방방곡곡의 서당 및 후학 양생기관은 빠른 시일내에 문을 닫으라!’

‘아니 그러면 후학들은 누가 가르치니까?’

‘어허 어머요! 제 3차 서당 개학안이 준비되어 있소’

‘그럼 방방곡곡의 훈장지기를 준비하는 많은 예비 훈장생들은 어찌합니까?’

‘어머! 나와 있소. 교육은 돈

별이 되지 않으니 다른 돈벌이 수단을 찾아보시오’
‘어허 후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가늠합니까?’
‘어머! 인제 아들이요!’
옛날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여러분의 근처에 있는 곳에 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

0... 정부에서 OECD가입을 앞두고 ‘노동악법’을 개혁한다는 목표로 ‘노사개혁위원회’(노개혁위)를 결성했다는데...
노개혁위는 노사 양측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단체리는데 어찌된 일인지 회사측과 임원직 주당만 계속되고 있는데...
혹 회사측 사람들이 TV유치원 ‘혼자서도 잘해요’를 너무 열심히 본 것은 아닌지...

〈월〉

TV 유치원

②-대발전의 새 지평을 위하여 ③-실천계획안의 추진상황

□ 기획조정처장 박석구(경영학과)교수를 만나

“현재 89%의 계획 추진했다”

— 현재 계획안의 추진정도는

= 의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안은 서울캠퍼스를 인문·사회과학의 특화를 추진하고 용인캠퍼스를 의국학종합연구센터로 중심으로 지역학을 특화발전시키는 계획으로 작성되었다. 1994년 1995년도 추진 상황을 점검 해보면 1994년도 계획사업 156건중 완료사업 118건, 추진중인 사업 18건, 1995년도에 이행될 사업 17건, 1996년도에 이행될 사업 3건으로 88%(1995년 9월 30일 기준) 계획을 추진하였다.

— 이중 이행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

= 이행되는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일부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중점사업이 어려운 사업과 인력충원 등이다.
— 각 연도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 1994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법학정원 증원을 위한 교수채용(6명), 강의평가제 실시 교수채용(6명)의 발간, 제1대학원 연구의 완공, 전산시스템 중립, 업무 자동화 확대, 국제 위성 방송 시설의 설치 등 총 11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1995년도 계획사업 218건 중 완료사업이 132건, 추진중인 사업이 64건, 96학년도 이행될 사업이 32건, 사업추진수준 92%, 97년 이행사업 28건으로 89%(1995년 2월 28일까지)의 실천계획을 추진하였

으며 이중 이행될 사업의 대부분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중점사업이 어려운 사업으로 1996년도에 이행될 사업이 대부분이고 계획추진수준 사업은 교내 LAN공사에 의한 사업의 중점된 공사 등이다.

1995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계속해서 많은 교수 교수 채용(20명), 제2대학원 교수연구중, 용인 캠퍼스 학생관 차고, 용인 캠퍼스 LAN 공사상 완공 등 총 132건의 사업을 완료했다.

—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중 추진되는 것이 있다면

= 한편 의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중 추진 사업으로 1994년도에는 교통학 교 교사 초빙 실시, 생명과학, 인문학 캠퍼스 확대, 국제 위성 방송 시설의 설치 등 총 11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실경에 캠퍼스, 경성대 실습실

제조정도를 추진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용인대학원 신축, 용인 캠퍼스 의과대학 신축, 대학원 6층중,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교육개혁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용인캠퍼스 학생복지관은 당초 계획보다 학회하여 건설완료되었으며 의국학종합연구센터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충하여 건설중에 있다.

— 완료되지 않은 계획안에 대한 추진계획은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6학년도에는 계획대비 85%, 95년도에는 89%의 확실한 추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1998년 도까지 추진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1994-1998)이 목표년도까지 추진 완료되면 교육·연구의 기반 시설과 학사운영계획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면학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1998년도 5개년 계획의 종료에 따른 1999-2003년도까지 의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 수립도 지금 추진중인 계획의 연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비둘기철판

이 문 별

□ 알립니다

• 모의토의심화내 졸업예정자의 취업지원 확대 및 토익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의 토의심화실을 시행하오니 참여 바랍니다.
배: 10월 8일(화) 늦은 5시부터 7시까지
곳: 대강당
신청기간: 9월 23일(월)부터 10월 7일(월)까지
신청장소: 학생회관 1층 학생취업정보센터
문의사항은 없습니다.

• 취업진로코드 교부 및 제출 졸업예정자(미 취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취업상담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취업진로코드를

비지, 활용하고자 하오니 졸업예정자 중 미제출자는 진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97년 2월 졸업예정자중 미 제출자
제출처: 서울-학생회관1층 학생취업정보센터
용인-학생회관1층 학생취업정보센터
준비물: 사진대(3×4)
제출기간: 9월 23일(월)부터 30일(화)까지
(학생취업정보센터)

• 96성인취업지원에 참가하세요
교내 취업의 취업준비를 도와드리고 여성신문사는 여성취업지원회를 개최합니다.
취업요망학생들에게 입사지원지침서 배부, 채용의 기회와 유망직종 소개 및 상담을 합니다.
배: 9월 23일(월)부터 24일(화)까지
이른 10시부터 늦은 5시까지

곳: 한국 종합시험장(KOEX) 1층 대강당
(주)여성신문사

• 제4회 영교와 영어영문 공민이 있습니다.
“DEATH OF A SALESMAN”
배: 10월 4일 늦은 4시 30분, 7시 30분
10월 5일 늦은 4시 30분
곳: 대학원1층 소강당
(영어교육과 학생회)

• 노아와 제록대회가 있습니다.
배: 10월 3일(목)아침 10시
곳: 운동장
전학년 참가바랍니다.
(노아과 학생회)

□ 축하합니다

• 전대협,한총련 10년에 빛나는 반미국의 선봉
여국의 대 박동 총학생회장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의대인)

• 열심히 생활하시는 대인영,한영,수영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가는 길에서 미모지 친구들)

왕 산 골

□ 축하합니다

• 우리의 영원한 카톨릭 학생회의 지킴이 종신
형의 생일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카톨릭 학생회)

• 아가사 강성실 학살부장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언론학회)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 은누리 수족관 공개강좌 있습니다.
기간: 방학전까지 매주 목,금요일
시간: 15:00~17:00
문의: 학생회관 21호
(은누리 수족관)

7천의 단결로 여는 희망

용인, 2학기 정기학생총회 열려



2학기 학생회 출범을 앞둔 용인캠퍼스 정기학생총회 4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이 날은 세진정 상공계회와 학원자주회 등, 학생회 사수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김학형 기자
‘조국과 왕상을 사랑하고 믿음의’ 용인캠퍼스 제 17대 총학생회 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지난 20일(금) 4시부터 노천극장에서 4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아름다운 시대, 그러나 희망은 굳게 잡은 7천의 단결이 있습니 다’라는 모토 아래 새해의 정기총 회를 이루고자 했던 이 자리는 △ 개회선언 △애국가의 △총회 진행 방식 안준 △1학기 결산 보고 △2 학기 사업계획서 안준 △학생회 는 학자사업단 해야 하나라는 주 제의 대토론회의 순서로 1부를 장식했다. 특히 대토론회는 각 단 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질의에 총 학생회 건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 로 이루어져 활발히 진행됐다. 이후에는 ‘7천이 함께 먹는 저녁 식사’를 각 단별로 노천극장에서 가졌다.

2부순서는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이재규(자연·화학 4)가 보내온 편지 낭독과 송미리(자연 2)가 시 작했다. 또한 자연대 운동회 ‘물집 이’ 가장 높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노래에 맞춰 통일을 펼쳤 다.

이후에는 이번 연세대 통일과정에서 구술된 배현식(공대·정 보통신 2)군을 위해 공대 학생들 이 나와 ‘현석에게 보내는 글’을 낭독하고 노래를 부르고자 했다. 이어서는 지난 농촌활동중 모병사

□ 4일간의 단식을 끝낸 사범대 학생회장 이원복군을 만나

이 사 람 “교육이 자본의 논리에 지배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익인 행정을 비난했다.
“다른 사람들 밖에 바라볼때 이번 학년 대 문제처럼 사범대 문제도 사범대생들의 이 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게 두렵 습니다”라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러나 사범 대 문제는 이권의 싸움이 아니라 교육의 질 을 높여주는 예비 교사들의 합된 투쟁입니다” 고 말했다. 그리고 만해 하나 영인준제에 발 아야하는 상황이 될 때를 준비해 재단측과도 협상을 해야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범대생 도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학교법인에 열마나 외대 사범대 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미 지수입니다”라며 “사범대를 살릴 의향이 있다 면 문제가 없겠지만 학교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사범대를 포함해있는 것이 더 이익이라면 사 범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라고 신념을 밝혔 다. 사범대가 영인준제에서 협력관계를 받기

위해선 부속고설립 등의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 재단과의 협상이 더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
“학교법인에 사범대 지원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선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를 부탁했다.
4일간의 긴 단식을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 로 전혀 지쳐있지 않은 이원복 학생을 만났을 때 그는 “식당 앞에서 단식을 하느라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며 “이제는 단식을 할 하는 장소의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곳곳에 예비 교사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사범대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진정한 발전 희망을 가져본 다.

이준호 기자

‘학생회 사수와 세진정 성공개회’ 용인, 지난 17일 간부대회

‘학생회 사수와 세진정 성공개회를 위한 간부대회’가 지난 17일(화) 오후 2006 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교비지급 및 공간문제와 관련된 동아리연합회 자치권한달 상황을 통한 학생회장 정재현(사·노어 4)군이 보고했다.

이어서 △담당면사 해설과 토론 안오는

20일 진행될 정기학생총회 해설 및 행사를 위한 총학생회 결의 △간부학생회장 재단 등 이 안전으로 진행됐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정종훈(통·구 루마니아어 4)군은 “9월 학생간부대 회의 의 성과를 명확히하고 10월에는 보다 학생 들에게 다가가는 간부의 상을 창출하자”고 간부학생회 운동의 재단 배경을 밝혔다.

본교, 암스테르담 시장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 시장 현대문학서적 기증

지난 20일(금) 본교 대학원에서는 네덜 란드 왕국 스텔트 베르인 암스테르담 시장 의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대 학원장의 후원사 남동 △총학생회 학위 수여와 △시장의 답사 △기념품, 꽃다발 증정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스텔트 시장은 기념품에 대한 담화로 네덜란드 현대문학서 적 1권을 기증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본교 네덜란드어과 학 생들이 ‘In Amsterdam’ ‘Geef mij maar Amsterdam’을 불렀다.

학생취업정보센터 진로카드 발부

모의TOEIC 시험 신청 접수도

학생취업정보센터는 졸업예정자를 대상 으로 취업진로카드를 교부하며 YBM 시사 영어사를 대상하여 모의 토익시험 신청 접 수도 한다.

9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는 효 율कारी 취업상담과 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23일(월)부터 10월 7일(월) 사이에 카드교 부를 하면 된다. 교부 및 재발급신청은 서울 과 용인 캠퍼스 학생회관 1층에 있는 학생 취업정보센터, 학생취업정보센터 사진 1매 (3x4)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가 보존 대상자는 기업이 취업인원의 5% 채용을 의 무화하므로 신고하면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의 토익은 10월 8일(화) 오후 5 시부터 7시까지 대강당에서 치뤄지며 응시 료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3일(월)부터 10월 7일(월) 사이에 학생취 업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 직원은 “요즘 각 기업에 취업 열풍이 한시름처럼 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므로 학생들이 취업정보센터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야구대회 조편성표]

A조	B조	C조	D조
의 대	아주대	한양대	서강대
동국대	국민대	명지대	건국대
항공대	단국대	연세대	숭실대
고려대	외대(용인)	성균관대	홍익대
중앙대	경희대(수원)	한양대(안산)	인천대
건국대(충주)	광운대	대우공전	인하대

[주간일정표]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10월 합산 (사흘)	‘귀향버스 출발(이문) 11시	‘귀향버스 출발(양산) 10시	추석연휴		
민주남부 후기동맹(학생회)					

대학단신

3차 교개안 반대 위해 사범대 투쟁결의대회

‘사범대 하반기 3차 교육개혁안 반대를 위한 투쟁결 의대회’가 지난 17일(화) 대학원 201호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정기 총회의 자리였으나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족수 미달로 인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한양대 교육과 학 생들의 총동료 시자진 이번 대회에서 사범대 학생회장 이 원복(사·노어 4)군은 “제 3차 교육개혁안에 의해 현 사 범대의 위치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실천 계획보다 는 앞장 하나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 어서 하반기 집행부 소개가 있었으며 초창 연사로 참교육 시민 모임의 이상성 차장의 현 교육 정책에 대한 초청 강 연이 있었다. 이 강연에서 이차장은 “교육이란 훈련과는 다른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러 면 현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용인, 일학년 대표협의회 학부제 투쟁결의 다저

학부제 투쟁결의를 다진 일학년대표협의회가 지난 16일 (월) 학부 학생회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학생회실 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학부제 실시 반대 대표들이 모여 그동안 학부제에서 드러나는 폐단과 학생회 공동체 붕괴 위기에 대한 공유 및 이후 투쟁결의를 의제하는 자리가 됐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학원자주추진위원장 모성훈(인 문·사학 4)군은 “예전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로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앞으로 투쟁은 학부학생들을 모 아내는 대중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아마추어 야구대회 열려 서울지역 26개 대학 참가

제 16회 서울시 대학 아마추어 야구대회 추계리그가 지 난 22일(일)부터 본교 야구부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소재 26개 대학이 참가한 이번 야구대회는 22일 (일)부터 10월 27일(일)까지 4개조로 나누어 예선전을 거 천 후 11월 3일(일)부터 각 조 상위 2개팀이 토너먼트로 24일(일)까지 경기를 펼친다.

학교교의 지원없이 각 대학들의 참가금으로 치러지는 이 대회는 22일(일)에 본교와 동국대의 경기를 개전으로 본 고 운동장에서 벌어졌다.

또 이 날 소강당에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 이 참가한 야구인의 밤이 있었다.

용인총학, 기숙사 이동학생회 진행

총학생회측은 지난 18일(수) 모든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숙사에서 이동 학생회 사무를 펼쳤다.

용인캠퍼스에는 산주하고 있는 기숙사 학생들의 의견수렴 을 위해 진행한 이날 이동 학생회에서는 기숙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위시설 △사위시설운영 부 재 △보관실 부재 등이 지적됐다.

또한 여학생회는 신임 여학생 기숙사 사장의 지도방범에 대해 제기했다.

부총학생회장 나정환(통·구 루마니아어 4)군은 “그동안 기 숙사 문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심도있는 고민을 못했었다”라 며 “앞으로 기숙사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부응해서 근 시일에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6년도 예비군 기본교육

'96년도 우리대학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빠짐없이 출석하기 바랍니다.

아 래

1. 교육일정
1996.10. 8(화) : 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시반어과, 포르투갈어과, 이탈리아어과
10. 9(수) : 용인대, 동아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연세대, 한국대, 포항공과대, 경성대
10.10(목) : 동양대, 연세대, 연세대
10.11(금) : 자연과학대학, 정보산업교육대학
2. 교육장소
보령 제 5171부대 3대대(용인시 용화동 예비군 교장)
3. 교육비대상자
가) '96년도 전역한 예비군
나) 지역에서 8시간이상 교육이수자
다) 전역 6년차 이상자
4. 교통편
가) 서울 거주자 - 점심시간 07시 출발 (종합운동장대 주차장, 종합운동장 전철역 근처)
나) 성남, 모현거주자 및 모현학사생 - 학교에서 08시 출발 (학생회관 앞)
5. 유의사항
가) 훈련중지시에는 공포로 대신할 (복합계 및 학과계시원 참조)
나)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가지 반드시 지참)
다) 군도, 군복, 군화, 군모를 반드시 착용(복합계와 계과 제외)
라) 지각하지 말 것(개인 일선자는 08:50까지 도착)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캠퍼스 비상계획관실로 문의바람

※ 전화 : (0339)300-4111, 4119

용인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예비군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96년도 예비군 기본교육(2학기 복학생) 및 보충교육(기본교육 불참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리 하겠다는 학생에 비군은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비상계획관실(예비군 본 부)에서 확인한 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예비군 기본교육(복학생) 및 보충교육 대상자 교육일정
2. 교육대상
가. '96년도 2학기 복학생 중 지역에서 8시간이하(소집 점검시간 제외)교육이수자
나. '96년도 대학직접예비군 기본훈련 8시간 불참자
3. 유의사항
가.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는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니 필히 수형할 것.
나. 수형버스 이용회차자는 06:50까지 학교에 도착할 것 단, 개별일선(대중교통·소집통지서 뒷면 참조)에 는 07:50분까지 금곡교육장에 도착바람
다. 지연도착자(08:00이후 군내도착자)와 불참자(탈도·군포미착·예비군복과·모자상생 미일치된 자) 는 일선시간에 관계없이 전원 귀가조치 및 불참자라 라. 교육일선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 의 입소는 불가

※ 필히 소집통지서를 비상계획관실(예비군본부)에서 교육일선자 시간을 확인한 후 수령증에 본인인명을 하고 수령할 것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1997학년도 통역대학원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00명
2. 모집학과
가. 한국어번역·통역부(2년제) : 한영과, 한불과, 한독과, 한노과, 한사과, 한중과, 한일과, 한아과
나. 외국어번역·통역부(3년제) : 한영불과, 한영독과, 한영노과, 한영사과, 한영중과, 한영일과, 한영아과
3. 시험과목
가. 1차시험 : 공통영어, 전공외국어
나. 2차시험 : 한국어, 전공외국어 번역작문, 구술시험
4. 원서교부 : '96. 10. 7(월) ~ 10. 23(수) 17:00 까지
5. 접 수 : '96. 10. 16(수) ~ 10. 23(수) 17:00 까지
6. 시험일시 : '96. 11. 2(토) 10:00 부터

통역대학원 설명회: '96. 10. 7(월) 14:00 대강당

※ 본 대학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전문통역사와 타국적 국제정보취급에 일익을 담당할 번역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교육 기관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과과에 문의바람
TEL. 961-4406, 963-0558, 961-4112-3

통 역 대 학 원

1997학년도 경영정보대학원 특별전형 (주간)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인원
2. 지원자격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997년 2월 졸업예정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타 분야를 전공한 자도 응시할 수 있음
3) 대학의 전학년 평균점수가 B 이상인 자
3.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명함만 3매 및 반명함만 1매) 1부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입학후의 학업계획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1부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6. 10. 11(월)부터 10. 25(목)까지
5. 구술시험일시 : 1996. 11. 1(금) 10:00
6.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7. 기 타
가. 우편 접수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전할로, 수험료 반송 등기료(소액환)를 같이 우송해야 하며, 마감일까지 도착한 에 한하여 접수함
나. 기타 자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과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전화)965-7046, 961-4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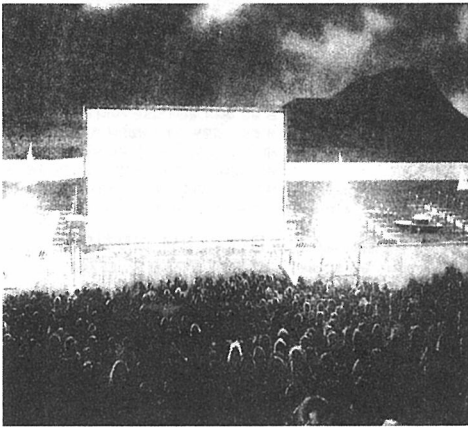
1996년 9월

경 영 정 보 대 학 원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다녀와서

인간을 닮은 예술, 그 20만 피트의 고도

제3세계, 아시아 영화의 가능성 확인



48시간동안 20만 피트가 넘는 필름을 말 그대로 눈이 시리게 보았다. 어두컴컴한 극장이 내게는 하나의 미장센이 되어 나를 서늘하게 기분 좋게 했던 부산국제영화제(PIFF)를 다녀와서... (PIFF: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의 며칠은 서울에서 통일호 발차기에 몸을 싣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부산역의 푸르스름한 새벽에 관람객들을 앞둔 영화제 현장으로 향하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막연히 불안했던 건 영화제가 일정에 잘 치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전날 13일 부산 수영만 야외 극장에서 열린 개막식이 무사히 성대하게 치러지고 개막식 작품으로 비평가 거장들이 상영되고 비로소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인사 사무국에서의 예기가 반갑고 환하게 다가왔다. 같이 갔던 키노의 일행들은 모두 인사 사무국 현관의 소파에서 꿀잠 잠이 들고 말았다. 영화제광장이 있는

남포동은 정오가 되기 시작하자 엄청난 사람들이 물결을 짓고 지나가면서 비로소 축제의 현장다운 분위기를 풍겼다. 9월의 태양은 따사롭다 못해 뜨거웠고 극장앞의 긴 줄은 태양아래서의 범람을 그려냈다.

일정을 주로 아시아 제3세계 영화를 보고자 했던 나는 첫 영화를 대한 단편선 다류로 정했다. '배출수인'과 '타이베이 타이베이'라는 다류와 애니메이션은 기대만큼 훌륭하지 않았지만 대만·중국 양안간의 어두운 그림자들에 담담하게 접근하였다. 많은 내외신 기자들의 낯익은 얼굴들이 지나치며 100년전 위메르 형제가 그림자 속에서 1프랑을 받고 상영했던 지난한 영화의 역사를 떠올렸다. 신비한 영상과 그들의 토속을 이 물비시스템을 알도하면 인도다라는 인도인의 예술과 문화를 유려한 움직임의 카메라로 보여 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아, 인간을 닮은 예술, 영화는 극과 현실과 다 큐와 애니메이션으로 장대한 필름의 숲에서 그저 나의 눈을 시리게 하였다.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 누드의 초상으로 그려진 파란한 필름들. 난 이때 순간적으로 장래 희망을 열사기사로 바꾸어볼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정신이 담긴 필름에 무한한 애정을 느끼게 됐기 때문이다. 애정 무렵부터는 정면 국영화(35mm)를 줄곧 보았다.

첫 작품은 임순례 감독의 '새 친구'였는데 유현목, 장선우, 이장호, 변영주 감독과 '독일 영화보관소'의 공동현장자인 '에라카 그레콜' 등 내외국인 강수연, 김의성 등 낯익은 배우들의 얼굴이 보였다. 휴게실에서 유현목, 이장호 감독님 앞에서 조그맣고 앉아 담배를 피우다 변영주 감독의 의아한 눈길을 받기도 했지만 내게는 많은 영화인들의 진지한 몸짓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새 친구'라는 영화는 재록처럼 세명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삶의 힘겨운 여정을 보여준다. 단편 '우중산맥' 이후, 임순례 감독의 역량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슈게이 감독의 '호드문'은 공동으로 라를 내리비치의 중심으로 잡은 영화이다. 오키와 배우의 삶의 모습들을 따뜻하고 재미있게 보여주는데 현재 홍콩영화의 비주류작으로 볼 수 있을듯 싶다. 난장판 역사이나 충실한 없는 영화에 감독과 인간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 '별책은 박수처럼 얻어내는 것'이라는 주인공 말과 연담자막으로 '어머니에게 바친다'라는 감독의 타이틀이 가슴에 잔잔히 다가왔다. 인간과 예술에서 가장 인간을 닮은 예술이라면 난 영화를 말하고 싶다. 분노·격정·애욕과 증오·그리움·환희와 희망을 영화는 가장 인간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실험과 이미지 배합에 대한 모든 기호와 텍스트에 대한 노력마저도 영화라는 매체는 충실히 투과시키기 때문이다. 난 48시간동안 하늘보다는 스크린의 백색막을 바라보다 인간의 강정을 객관화시키고 싶었다. 결과는 여파되지만 너무 많은 필름에

중독되었지만 말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영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대한 관심이다. 일본영화 '물속의 팔월'과 일본 단편선 등은 연일 매진 사태를 일으키며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물속의 팔월'은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인상적인 영화였다. 적어도 내게는... 후쿠오카의 신화를 담은 물의 축제와 물, 블루존의 하늘과 물. 이들은 때때로 가장 섬세한 배합을 가장 아름다운 시료를 사용하여 표현한 듯 하다.

고교시절부터 영화를 만들고 메이저 영화사의 연출직을 받았다는 '이시히 소고' 감독의 섬세한 눈빛이 일본영화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과 이제 우리 영화시장의 어두운 전방을 오묘하게 시키는 듯 하다. 할리우드는 맥도널드리즘의 파상적인 공세를 취하지만 우리의 정신을 그들에 맡길 수 있지 않는가? 제 3세계와 아시아 영화인들이야. 난 그들의 정신이 명랑하게 살아있음을 이번 영화제에서 알았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 속에서 아시아 영화의 거친 호흡을...

이번 영화제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듯 하다. 젊은 스태프들은 눈을 반짝거리며 부산 영화제에 자원봉사하고 있다. 관객들은 박수와 호응을 보내며 극장안을 채웠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과 편중되지 않은 기획은 물론이다. 다만 무대시설과 제반시설의 확충이 앞으로의 과제인 듯 싶다. 많은 내외국인들에게 부산이 아시아 영화의 새로운 신화로 남으려면 이제 많은 투자와 열정이 지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한 영화는 카메라 안에 투철한 정신을 담고 부산에서 새로운 신화를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영화제에서의 주요 작품에 대한 소개와 정리를 우리 외대 학생들에게 계속 알릴 수 있기를 바라며 위에서 언급하지 못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던지고 싶다. 20만피트의 고도에서, أنا 그를 뛰어넘으며.

안 동 환
(정학·신방 2)



사진수필

초록 모자.

빨간 조끼.

왕산 곳곳에서 우리는 세민전 자평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땀 속에 일컫지는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21세기 통일 한국의 비전.

신나는 마카레나 춤동으로 왕산의 밤을 아우르는 이들의 모습에서 7000이 함께하는 세민전이 느껴진다.

- 지난 20일 용인캠퍼스 정기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자평단을 따라 마카레나 춤을 배우고 있다 -

한승주 기자

사막 건너기

모래의 늪,

뜨겁게 그 수렁의 깊이를 살게 해 다오

밀도 끝도 없이 꺼지고 솟고

솟고 꺼지는 허방, 기럭기럭

망밀으로 썰물의 새들이 난다

깃털의 가벼움으로 사선을 넘어간 험된 약속들

길이 빠져나간 길 밑은 또 별이 차오는데

누가 온몸의 깃을 세워 변질의 밤을 막으려 하는가

떠날 것은 떠나야 한다

별가슴 서리게 아파 울지라도

부끄러움 망명의 깃발로 필력이자 말아야 한다

사막의 적오 그 너머

땅굴으로 해는 떠오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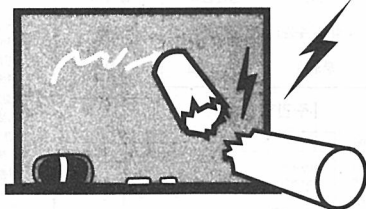
불면의 호흡에 흔들리던 지평선 위로

뚜벅뚜벅 낙타 한 마리

진공의 세월을 떠내고 간다.

이 석 호
(영어과 감사)

확 ~
던져 버려?



"교수님! 안 들려요!"

하루에 질문보다 더 많이 하는 소리
복도에서 떠드는 외대인을 볼 때마다
교수님의 분필은 필기를 멈춥니다.
조용한 복도 풍경,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 외대광고동아리 애드라인 -

외대가 세계를 보여준다

행사기간 10월1일부터 10월13일까지 문의사항 96세계민속학술문화
축전 준비위원회(0335)30-4160, 34-5768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0335)30-4152 주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주관/제17대 총학생
회세민전준비위원회 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A&C 코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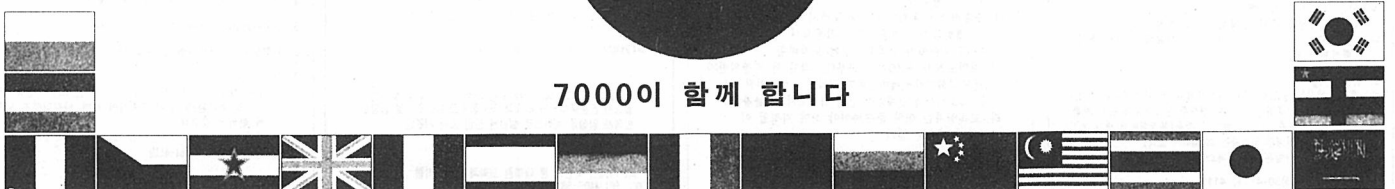
행사내용

세계영화축전 - 외대 용인캠퍼스 10월 1,2,7,8,9일

세계풍물,음식전 - 대학로,한국방송대학교 10월 5,6일

세계민속공연 -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 10월 12,13일

7000이 함께 합니다



조국과 왕산을
만들고 공존하며

제 17대 총학생회 세민전 준비위원회